

# '중앙공모'로 도 주요사업 추진 탄력

# 동부권 발전사업 종합평가

### 도, 4단계 분류...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전북도가 동부권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및 결과활용을 통해 운영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동부권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평가점수에 따라 6개 시군을 4단계로 분류해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원된 19개 사업(식품 6, 관광 13)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평가로 그간의 사업성과 및 미흡한 점을 점검해 시군의 성과제고 의지를 고취했다.

또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재원의 배분, 집중, 지원분야 선정 등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평가결과를 동부권사업의 식품과 관광을 종합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임실, 남원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임실은 사업단 자립화를 위해 판매

장 확대, 타지역 상품연계 등 적극적인 수익사업 추진이 남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 욕구를 충족하려 한 노력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그 동안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표 개발 및 시군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과 6개 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거쳐 동부권발전사업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동부권 특별회계 2018년 시군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 승인과, 동부권 심화토론회 개최 및 평가결과 부진 시군위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평가가 동부권발전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나침반이 되기 바란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다양한 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1/4분기 중앙공모사업 28건 선정 국비 451억원 확보... 정치권과 공조 선제 대응 결과

전북도가 중앙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공공실버주택 건설, 새마을사업 등 9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277억원을 확보했으며, 1/4분기를 기점으로 중앙공모사업에 총 28건 선정, 45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속된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와 조기대선제 전환 등의 문제로 부처차원의 중앙공모사업 추진일정이 새 정부 출범이후로 늦춰지는 등 어려운 국비확보 여건 하에서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전북도가 이와 같은 중앙공모사업의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는 초기 준비 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 방점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가 이뤄졌다.

특히 도시군.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발굴체계를 유지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증가 추세로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라 공모사업 응모 필요성에 대한 도 자체의 종합적 검토 및 사전심사 시스템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50ha 이상을 영농하고, 조직화된 들녘경영체에 농가 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건강한 도시 만들기

고창에 위치한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에서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전달할 어린이 홍보대사 꼬마농부들이 건강한 도시 만들기 열중하고 있다.

등이 선정됐다.

특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선정을 통해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지역에 경영체 육성사업 내실화 및 농촌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농민과 함께 하며,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락농정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월에는 인접한 복수의 지자체가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취약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시업,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특히, 선도시업 선정을 통해 인접 지자체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마을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 선정을 통해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가구 수요증가에 따른 노인 주거시설 부족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4월에는 14건, 12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해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 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 도, 대규모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실태 사전점검'

전북도가 5월까지 대규모 지역축제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관리실태 사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올해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는 총 63건으로, 이 중 봄철에만 전체의 25%인 16건이 개최 계획이며, 특히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축제 8건으로 6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도는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을 사전 실시한다.

또한 행사 당일 시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현장합동상황실 설치, 운영, 구조, 구급요원 긴급출동태세 등 민일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도,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TF' 운영

전북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정책 방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도 여건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TF'를 구성, 운영한다.

이번 TF구성은 행정부처가 단장으로 TF를 총괄하게 되며, 5개 분야별 전략TF는 소관 실국장을 중심으로 전북, 전북TF 등 유관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이끌어가며, TF운영도 새정부 출범 및 인수위 일정 등을 감안해 2~3개월 단기간 활동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주관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 4대 핵심 분야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포함했고, 행정자치부는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하는 등 각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정부동향과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 육성 전략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기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

도수산기술연구소는 선도시업경영인 등 수산업 전문가들이 창업어가를 직접 기술 지원하는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귀어업인 또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인 창업어가를 선발해 수산 신지식인, 선도시업경영인 등의 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후견인들과 1:1로 연결해 양식기술, 경영정보, 어업동향 등의 어업기술과 정보를 받는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인재용 기자

## 도,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등

전북도에서는 맞춤형 이름의 색다른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는 동안 안정된 주거생활이 보장되지만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우선공급과 가점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및 재계약시 입주

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도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서민주거 안정과 노인.장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저출산극복.장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6개지구 2,437호와 농어촌 임대주택 4개지구 335호, 복지.주거를 혼합한 공공실버주택 2개지구 160호,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2

개지구 160호, 반값임대주택 100호, 서민임대주택 8,990호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택정책 시행으로 지난 2월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 LH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도는 17개 시도 중 임대주택 재고수 공급실적이 전국 상위권(5위)으로 나타났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